



변화하는 대학의 위상



박 영 식
광운대 총장

I. 여는 말

우리는 1990년 전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러하다. 국제적으로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다. 이로써 1945년 세계 제 2차대전의 종료와 함께 시작된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끝나고 화해(détente)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틈새를 세계화의 바람이 파고들어 세계를 다시 새로운 측면에서 긴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1990년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정치는 군부통치에서 문민정치로 이행하였으며, 교육은 소위 '학원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던 시대에서 평가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오늘 우리의 대학들이 겪고 있는 변화가 1990년을 전후한 국제적 변화와 국내적 전환에서 시동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은 1945년과 더불어서이다. 1945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개의 대학과 10여 개의 전문학교가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대학의 문이 열린 지 50년이 지났고 그 50년 동안에 대학의 위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음을 알고 있다. 필자는 대학이 겪어 온,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충격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들고자 한다. 산업화의 충격, 정보화의 충격, 세계화의 충격이 그것들이며, 이 충격들이 대학의 위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II. 산업화의 충격

1945년부터 대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과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산업화에 착수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 동안에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

산업화의 충격에 의하여 대학은
소수의 엘리트 교육기관에서 다수의 보편 교육기관으로,
기초학문 중심의 College형의 대학에서 전문학문 중심의
School형의 대학으로 변화하였으며,
산업사회적 학과들이 등장하면서 대학이 그 색깔을 바꾸면서 대규모의 대학으로 변모했다.

”

이룩하게 된다. 1960년대 초반 하나도 없었던 재벌이 1980년대 중반에는 30대 재벌로 되었을 만큼 경이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산업뿐이 아니라 정부도 커지고 교육도 팽창되고 사회도 확대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교육의 팽창에 초점을 맞추면, 일년이 다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학 졸업자를 요구하게 되었고, 대학 졸업자의 공급이 사회의 수요를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은 그 전공에 관계없이 모두 취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들은 앞다투어 학생을 증원하였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사람들로 문교부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이 사실상 1985년을 전후하여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팽창은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필자는 산업화에 의하여 대학이 양적 팽창을 거듭한 일련의 과정을 산업화의 충격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한국의 대학들은 산업화의 충격에 의하여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첫째로 대학이 소수의 엘리트 교육기관에서 다수의 보편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의 수도, 대학생의 수도 소수였으며, 대학생들은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고, 사회도 대학생을 엘리트로 간주하였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한 1950년대 후반만 해도

대학 졸업식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자가 중심을 이루었고, 졸업생들은 모두 긍지를 갖고 졸업식에 임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석사 학위 취득자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필자가 석사 학위를 받을 때는 한 사람씩 단상으로 올라가 총장으로부터 학위증서를 받았고, 후드를 목에 걸어 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대학이 엘리트 교육 기관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대학이 인문·사회·자연의 기초학문들을 중심으로 하는 College형의 대학에서 법학·의학·경영학·행정학 등의 전문학문들을 중심으로 하는 School형 대학으로 변모하였다. 학문 위주의 대학에서 직업 위주의 대학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1950년대에도 고등학교 문과학생들은 법대를 선호하였고, 이과학생들은 의대를 선호했지만, 그 정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심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Y대학교의 정법대학에는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의 네 개 학과가 있었는데, 신입생들의 합격선도 오랫동안 위의 순서대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위가 역전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또한 이 대학교 상경대의 경우 1960년도 중반까지는 경제학과의 합격선이 경영학과보다 높았는데, 그 이후 서로 몇 차례의 역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경영학과의 합격선이 경제학과를 앞서게 되었



다. 1990년 이후 대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 학부제(또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법학·의학·경영학 등 전문학문 학과로 편중되는 통에 인문·사회·자연의 기초학문 학과들은 동공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기초학문들을 살리기 위해 전문학문들을 전문대학원(School)에 옮기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학이 College형의 대학에서 School형의 대학으로 바뀐 것은 산업화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대학에 산업사회적 학과들이 등장하였고, 그 추세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대학의 역사를 상고할 때 대학은 오랫동안 소수 귀족들과 일부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고, 신학·법학·의학·철학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그때의 대학은 매우 느리게 변화하고 있었다. 농경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농사짓는 일에는 별다른 교육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이 빠른 속도로 변모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직종들은 새로운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이었고, 학문의 발달이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었으며, 새로운 직종이 학문의 발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산업화와 대학의 변모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다.

산업화와 대학의 변화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산업화에 의하여 사회가 성장하고 그 사회적 확대가 대학의 팽창을 초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의 발달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학문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산업화와 대학의 변화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대학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변화했다.

산업화는 대학을 팽창시키면서 대학에 산업관련 학과들을 등장시켰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에는 전통적 대학 개념에 부합되는 학과들만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에 연관되는 학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학과들이 소위 인기학과들로 부상하게 되었다. 도서관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신문방송학과, 사회사업학과, 산업심리학과, 경영정보학과, 식품공학과, 영양학과, 의상학과, 디자인학과, 만화학과, 비서학과, 관광학과, 연극·영화·연예학과 등 수많은 산업사회적 학과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 학과들이 대학의 색깔을 바꾸어 나갔던 것이다.

산업화의 충격에 의하여 대학은 소수의 엘리트 교육기관에서 다수의 보편 교육기관으로 바뀌었고, 기초학문 중심의 College형의 대학에서 전문학문 중심의 School형의 대학으로 변화하였으며, 산업사회적 학과들이 등장하면서 대학이 그 색깔을 바꾸면서 대규모의 대학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Ⅲ. 정보화의 충격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로 깊숙이 진입해 있다. 정보화는 대학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충격에 의하여 대학은 다시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이다. 산업사회가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한된 사회라면, 정보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와 농경사회 사이에 양의 차이가 있었다면, 정보사회와 산업사회 사이에는 질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산업혁명에 의하여 이룩된 사회라 하고, 정보사회를 정보통신혁명에 의하여 이룩되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 산업혁명은 증기와 전기라는 새로운 동

“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보통신혁명에 의하여 우리는 거리에 상관없이
 '동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사회는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한된 사회이고,
 정보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한 사회이니,
 정보사회가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력에 의하여 촉발된 혁명이다. 증기와 전기가 농경 사회와 산업사회 사이에 엄청난 양적 차이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면 정보통신혁명은 어떤 혁명인가?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한 혁명, 한 마디로 시간과 공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었다. 먼저, 인간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한한 공간을 갖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정보통신의 총아인 인터넷에 의하여 우리는 그 '무한한'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은 시간이 거리에 비례하는, 즉 거리가 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짧으면 시간이 적게 걸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왔다. 또한 이런 시간의 제한성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런데 정보통신혁명에 의하여 우리는 거리에 상관없이 '동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정보통신혁명으로 우리는 '무한한' 공간과 '동시적'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정보통신혁명을 시간과 공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경험적 사물들은 시간과 공간 내에 있고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했다. 오로지 신만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보통신혁명에 의하

여, 적어도 정보의 수용과 전달에서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산업사회는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한된 사회이고, 정보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한 사회이니, 정보사회가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한 정보사회는 대학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으며 주게 될 것인가? 필자는 그 변화가 행정의 정보화, 교육의 정보화, 대학의 정보화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자 한다.

1. 행정의 정보화

우리는 정보화가 '대학의 행정'에 큰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1978년경 Bach방식으로 시작된 대학 행정의 정보화는, 1988년경 대학 캠퍼스 단위로 On Line방식으로 되고, 1998년경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 수강신청을 집에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에 관한 온갖 정보를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으며, 전자결재를 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고, 강의도 인터넷으로 하는 과목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행정의 정보화는 하루가 다르게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



어, 이것이 대학을 어제의 대학과는 다른 정보화된 대학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2. 교육의 정보화

우리는 정보화가 대학교육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학은 이미 사회와 유리된 상아탑에서 벗어나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갖게 되었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진척됨에 따라 대학의 교육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가 진척되면서 대학에 산업사회적 학과들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정보사회적 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현재의 산업사회적 학과들은 시들게 되고 정보사회적 학과들이 생겨나면서 대학의 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대학의 학과편제도 정보사회적인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학생들의 분포도 그것에 상응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화는 대학의 강의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의 방식이 크게 다음 3단계로 변해 왔음을 알고 있다. 읽기 방식, 구두 방식, 매체 방식이 그것들이다. 읽기 방식은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 50여 년 간 지속된 강의 방식으로써 교수가 강의 내용을 읽고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 적는 방식이다. 구두 방식은 교수가 강의 내용을 자유롭게 말하면 학생들은 그 요점을 적는 방식인데, 1950년대부터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구두 방식도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서서히 기울게 될 것이고, 그 대신 매체 방식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매체 방식은 강의에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써,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하여 불가피한 일로 되고 있으며, 정보사

회에 부합되는 강의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만간 강의 방식이 매체식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제 강의 방식도 구두식에서 매체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서 있는 것이다.

3. 대학의 정보화

정보화는 행정의 정보화와 교육의 정보화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정보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학생 없는 교실', '책 없는 도서관', '캠퍼스 없는 대학'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정보화는 이미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 상상의 일이 아니라 현실의 일로 되어 있다. 디지털대학이 바로 그 대학인 것이다. 1998년 2월 교육부는 대학에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지침'을 시달렸고, 이에 많은 대학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상대학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중 몇몇 대학들이 우수가상대학이나 시범가상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가상대학이 시동되어 그동안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들 단위로 가상강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드디어 2001년 3월 9개의 사이버(또는 디지털)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문을 열었고, 2002년 3월을 기해 다시 7개의 디지털(또는 사이버)대학이 문을 열게 되었으며, 학생 정원도 총 11,020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완전정보화대학'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 디지털대학의 출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현존의(물리적) 대학의 위상에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대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한 대학,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학, 학생 정원에 구애받

“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계라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제일이어야 하고,

세계 제일이기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그 세계화의 파고가 대학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

지 않아도 되는 대학,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 대학, 인터넷의 기능상 교수와 학생 사이에 질의응답(쌍방향 교습 방식)이 원활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통신이 발전하여 현재의 기술적 제한성(음질, 화상 등)이 극복되면 우리나라에, 아니 전세계에 가장 좋은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지닌 대학 하나만 있게 되는 그러한 대학 상황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역사 800년 동안 불멸의 성체처럼 우뚝 서서 그 위용을 과시해 온 대학이 정보화의 충격에도 요지부동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대학과의 경쟁에서 밀려 그 자리를 내어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될지는 정보사회 최대의 과제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IV. 세계화의 충격

말할 필요도 없이 정보화와 세계화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정보화가 세계화의 원인이요, 그 촉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와 세계화는 결코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우리는 정보사회를 정보통신혁명에 의하여 이룩되고 있는 사회라 했고, 정보통신혁명을 시간과 공간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사회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을 극복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을 구획하는 담이 허물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광장, 하나의 마을, 하나의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지구촌이란 개념은 1963년 캐나다의 역사학자 마셜 맥루한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초의 일이고, 지구촌이란 개념이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국정의 지표로 된 것은 1995년 문민정부 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라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제일이어야 하고, 세계 제일이기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세계화가 경쟁 또는 경쟁력과 동일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세계화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경쟁은 강자의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서도 세계화가 경쟁의 개념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어쨌든 세계화의 파고는 이미 높아졌고, 그 세계화의 파고가 대학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경쟁력을 산출하기 위해 크게 변해야 하고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학은 경쟁력을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대학도 담을 허물어야 한다. 대학을 개방하여 열린사



회로 만들어야 하고 또, 대학을 열린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을 시장화 해야 한다. 대학을 시장화 하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 방안으로 다음 두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교수 채용의 개방화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 사회의 시장화이다. 우선 교수 채용을 개방해야 한다. 교수 채용을 한국 사회에 개방해야 함은 물론이요, 외국에도 개방해야 하며 필요한 교수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채용해야 한다. 여기서 자기 대학 출신 위주로 교수를 채용하는 동족번식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으로 교수 사회를 시장화 해야 한다. 즉, 교수 사회를 고착시키지 말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번 어디 대학교수면 영원한 그 대학교수'라는 낡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교수는 그의 학문적 업적으로 그의 몸값을 올릴 수도, 다른 대학으로 옮길 수도 있어야 한다. 옮겨 다니는 교수가 유능한 교수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교수업적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교수계약제와 교수연봉제도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 제도들이 악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 사회의 시장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교수 사회의 시장화가 교수계약제와 교수연봉제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대학은 개방되어야 하고 시장화 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충격이 대학의 시장화를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V. 맺는 말

대학은 변해 왔고 변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과 사

회와의 유기적 연관성 때문이요,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에 의하여 변화되어 왔다. 이런 대학의 변화는 오랫동안 미미한 것이었으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학의 변화는 급류를 타게 되었다. 우리는 서구의 대학이 12세기경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의 600년 동안 대학의 변화는 극소한 것이었다. 그 600년 동안은 농경사회였고, 근대 과학이 정립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대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였다. 산업은 과학을 필요로 하였고, 과학에 의하여 산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산업과 교육과의 깊은 연관성으로 산업사회에서 대학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업화가 대학에 대한 첫 번째 충격이었다고 할 것이다.

산업화의 충격에 의하여 대학은 인문·사회·자연의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College형 대학에서 법학·의학·경영학·신문방송학 등의 전문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School형의 대학으로 변모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화의 충격에 의하여 대학은 디지털대학으로 되거나, 디지털대학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현존의 거대 대학들이 일 대 일 교육이라는 교육의 원형에 충실한 소규모의 대학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충격에 의하여 대학은 그 경쟁력을 위해 개방화되고 시장화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박영식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예모리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총장 및 한국철학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광운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플라톤철학의 이해」, 「비트겐슈타인 연구」, 「서양철학사의 이해」 등이 있다.